

2015 연차 보고서

ANNUAL REPORT

CO₂



그린피스의 미션

독립적인 캠페인 단체 그린피스는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고, 깨끗하고 푸른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항합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모든 다양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해양, 토양, 대기, 수질의 오염과 남용 방지

모든 핵 위험의 종결

세계 평화, 군비 축소, 비폭력

그린피스의 핵심가치

긍정적인 행동

그린피스는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대응방식을 취합니다.

신뢰

그린피스는 환경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 연구 및 행동함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글로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경 없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범세계적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독립성

그린피스는 정부, 기업 혹은 정당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후원만을 받아 정치적·상업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린피스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도 언제나 독립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REENPEACE

재단법인 그린피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 02-3144-1997 ✉ supporter.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cover story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기후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 Greenpeace

목 차

- 02 여러분과 함께 만든 2015년의 승리
- 04 인사말
- 06 기후에너지 캠페인
- 16 해양 보호 캠페인
- 20 산림 보호 캠페인
- 24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 28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
- 32 캠페인 지원
- 38 후원자 행사
- 42 후원금 사용 내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supporter.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홍콩 8/F, Pacific Plaza, 410-418 Des Voeux Road West, Hong Kong

✉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 +852 2854 8318

베이징 Room 303A, Tower B, Jiachengyoushu Office Building, 25 Dongsishitiao,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10) 6554 6931

타이페이 No. 109, Section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045

타이중 No. 57, Wuquan West 4th St, West District, Taichung City, Taiwan 40348

가오슝 No. 22, Chengde St, Sanmi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7 80756

✉ donor.services.tw@greenpeace.org

☎ +886 (2) 2321 2798

2015 연차 보고서(통권 2호)

발행일 2016년 6월 15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길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GREENPEACE

여러분과 함께 만든 2015년의 승리

2015년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그린피스는 북극의 석유 시추 중단, 유해 화학물질 퇴출, 산림 파괴 및 불법 어업 중단과 기후 변화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후원과 응원에 힘입어 거둘 수 있었던, 2015년의 값진 승리를 소개합니다!



SAY YES TO CLIMATE ACTION

© Greenpeace

유럽



© Roberto Isotti / Greenpeace

아웃도어 업계에 디톡스를 요구하다

2015년 그린피스는 아웃도어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PFC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의 그린피스 사무소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한 결과, 영국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라모가 최초로 그린피스의 디톡스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 섬유제조 단지 이탈리아 프라토에 위치한 20여 개 기업이 동시에 디톡스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 Uiet Fransasi / Greenpeace

거대 펄프 기업, '산림 파괴 중단' 서약

지난 6월, 세계 최대 펄프 기업 중 하나인 APRIL사가 인도네시아 산림 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PRIL사는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림의 이탄습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산림 보호 방안에 동의하는 한편, 이탄습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노닐페놀(NPE) 금지

지난 7월, 유럽연합은 유해 화학물질인 노닐페놀(NPE)이 포함된 섬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1년부터 패션 속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유럽연합의 규제 허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쓰촨 대왕판다 서식지 보호

작년 10월, 그린피스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중국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왕판다 서식지인 쓰촨 원시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대왕판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폭로 이후 쓰촨 산림청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기존의 허점을 보완한 새로운 규제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상업적인 벌채가 대왕판다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한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



© Pedro Arneire / Greenpeace

마침내 북극을 떠난 셸

그린피스는 지난 3년 동안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글로벌 석유 기업 셸(Shell)의 북극 석유 시추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3년에 걸친 캠페인 끝에 2015년 9월, 셸은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Kanghoo Lee / Greenpeace

세계 최대 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리 원전에 더 이상의 원전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신고리 3, 4호기 앞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쯤!"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에게 전했습니다.



© P H Yang / Greenpeace

멸종 위기의 바키타를 지키다

그린피스는 멸종 위기의 바키타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키타는 비싼 값으로 불법 거래되는 희귀 어종 토토아바를 잡기 위해 그물에 함께 희생되며 급격히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전 세계 13만 명의 시민들이 바키타 보호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으며,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로 밀수되는 토토아바의 부레를 압수했고 멕시코 정부는 불법 어업과 토토아바 밀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Paul Hilton / Greenpeace

불법 어업과 남획 중단을 위한 노력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지난 9월 먼 바다에서 벌어지는 참치업계의 불법 어업 및 남획을 감시하기 위해 항해에 나섰으며, 파푸아뉴기니 인근 공해에서 대만의 어선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대만 정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원양어업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Roger Grace / Greenpeace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지키다

광산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호주의 대산호초군락,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지속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작년 8월, 이 석탄 사업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던 영국 최대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념

저는 항상 세상을 변화시켜왔던 우리의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전 사무총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사무총장으로서 조그마한 홍콩의 한 사무실에서 출발해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사무소가 생겨나고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지부로 성장하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아시아가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역시 성장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곧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그린피스 국제본부로 돌아가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이자 새로운 사무총장인 팡칭이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뤄낸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를 후원해주시

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 그린피스가 다양한 캠페인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힘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역할은, 우리가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후원자님들의 믿음과 응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의 전통 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지부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원자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이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동아시아 지부를 떠나지만, 열정적이고 재능 넘치는 이들이 우리 앞에 던져진 환경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전 사무총장이자 훌륭한 리더였던 마리오 다마토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자리를 채우는 일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씨 팡칭(Sze Pang Cheung)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저는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린피스에서 건강한 식품 캠페인과 산림 보호 캠페인 매니저를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프로그램 국장을 거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부 사무총장 등 다양한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은 오랫동안 그린피스에서 활동한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처음으로 동아시아 지부의 4개 사무소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사무소들과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팀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그린피스가 이룬 큰 성과는 중국의 석탄 사용량 감소입니다. 그린피스는 수년간 중국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중국은 석탄 수입량을 30% 감축했으며, 향후 3년 동안 신규 석탄 광산에 대한 허가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로, 중국이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수록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작년에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여러분이 들려주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향후 3개년 캠페인 계획에 도입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즉 IT를 통한 변화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키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소비문화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인 기후 행동



© Jean Chung / Greenpeace

2015년은 “기후 행동의 해”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글로벌 기업들, 지역사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위험한 원전의 확대를 막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은 이제 그만!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절반이 발생하는 중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석탄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은 석탄 수입량을 30% 감축했고 2016년에는 전력 생산 중 석탄 비중을 62%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향후 3년 동안 신규 석탄 광산에 대한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글로벌 석탄 투자 중단을 촉진

지난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산업으로 얻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중단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IT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의 IT기업들에게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아시아 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몇 년 간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으며, 2015년 한 해 미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신규 구매한 기업 중 60% 이상이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동참한 IT기업들이었습니다.



탄광개발로부터 대산호초를 지키다

그린피스는 카마이클 광산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호주의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지키기 위해 석탄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월, 호주 법원이 카마이클 광산 개발 허가 판결을 뒤집은 것에 이어 커먼웰스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기업 쉘, 북극을 떠나다

2015년, 그린피스는 쉘의 북극 석유 시추를 막기 위해 다양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쉘의 배생선을 막기 위해 다리 위에 매달리기도 하고, 쉘 본사 앞에서 '북극 빙하를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750만 명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난 9월, 쉘은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글로벌 리더들

파리 기후 회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국의 대표들은 기후변화의 위험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동의하고,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성과입니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표들에게 전달했으며, 각 국의 지도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 Yuchi Mahatma / Greenpeace



© Paul Langrock / Greenpeace

재생가능에너지를 향한 변화

2015년, 후원자님들의 한 걸 같은 도움에 힘입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전 세계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목표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

2015년 세계 석탄 사용량은 2.3%에서 최대 4.6%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린피스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온 결과입니다.

그린피스는 중국에서 석탄 투자로 인한 환경 위험을 분석하고, 기업과 정부에게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수년에 걸쳐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2015년 석탄 수입량은 30%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6%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6년 안에 에너지 소비량 중 석탄의 비중을 62%까지 감축하고, (2015년 64%) 2019년 후반까지는 신규 석탄 광산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석탄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해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했으며, 핀란드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모두 중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독일에서 역시 석탄 퇴출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탄 업계는 세계적으로 퇴출의 압박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져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석탄 없는 미래를 향한 희망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 Lu Guang / Greenpeace

석탄과 초미세먼지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2015년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진과 그린피스가 함께 한 연구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 'PM2.5'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기타 심폐질환 등이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사무소는 북경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 31개 주요 도시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추가 사망률이 흡연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것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 "위험한 숨결2"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중국 도시의 대기질 순위를 담은 "도시 별 대기질 순위" 보고서 시리즈는 중국 언론과 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적 연구, 현장 조사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의 전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0%의 도시는 대기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역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2015년 9월,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가 수년간 1,100만 대 가량의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는 것이 탄로나며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스캔들이

터지자 그린피스는 바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시장의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만에서는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자동차 업계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Jean Chung / Greenpeace



© Roger Grace / Greenpeace

호주의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2015년, 그린피스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 대산호초 지대는 인근 석탄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중인 카마이클 광산이 완공될 경우, 매년 1억 2천 1백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호주 정부에게 카마이클 광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네스코에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린피스 영국, 홍콩, 대만 사무소에서는 카마이클 광산 사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게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 연방 법원은 카마이클 광산 개발 허가를 취소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였던 은행들 역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방 정부의 석탄 사업 개발로 인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중국 신장 지역의 자연보호 구역을 지키기 위해 지역단체

와 함께 캠페인을 펼쳤으며,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 석탄 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위한 투자 방향 제시

그린피스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화석 연료의 단점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캠페인의 결과 주요 은행들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을 비롯한 대형 석탄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철수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일이며,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실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사업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석탄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현재 다른 NGO들과 함께 전 세계의 펀드, 보험사, 은행 등을 위한 매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중국의 석탄 사업의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석탄 전력 과잉과 투자 거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미 심각한 전력 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최대 7천억 위안이 석탄 전력 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하며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

그린피스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피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델리에 위치한 성 가족병원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다나이 마을 전체를 위한 소규모 독립형 태양광 전력망을 설치하는 등 인도 전역에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현재 중국에서 높은 장벽에 직면해있습니다. 작년 9월 그린피스는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법적 장애물과 해결 방안을 알리는 “태양광 에너지 금융 혁신 트레이닝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400명 이상의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참가했으며, 만 명이상이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프에서는 성공적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운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쑤성 지역을 최초의 연구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외친 “너와 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파리 기후협약을 앞두고 그린피스는 78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기후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100%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리의 에펠타워 앞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비상”이라고 적힌 거대한 열기구가 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합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린피스의 “2015 에너지 혁명” 리포트를 뒷받침했습니다.



© Panos Mitsios / Greenpeace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저지대 섬나라인 키리바시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석탄 발전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역시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며 그린피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세계 50대 환경오염 기업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가 인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JOOST RENTEMA / Greenpeace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IT기업들

그린피스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IT기업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5월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 사무소의 “닫거하자” 캠페인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 연료와 위험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IT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IT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터 체계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한다면 전력 수요가 전체 국가 중 6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린피스는 2009년부터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미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소비자들과 그린피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에서는 아이언맨, 심슨, 아톰, 태권V 등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IT기업들에게 시대에 뒤쳐진 석탄과 위험한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전했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그린피스 부스에서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현황을 공개하며 기자 간담회를 통해 IT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수준이 고작 1%에 머물러 있다는 실태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가 가장 먼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사이트를 찾아라!

지난 11월에는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린 스코어카드” 프로그램을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현재 방문한 웹 사이트가 어떤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적표를 보여주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삼성 SDS, KT 등의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전력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린피스에 공개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및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국내 IT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원전

신고리 3, 4호기 건설이 완료되고 3호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고리 원전은 사실상 세계 최대 원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개의 원전을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원전이 밀집해 운영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이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리 원전은 울산과 부산에 인접하여 있으며,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 30km 이내에 3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어 그 위험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그린피스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알리고, 더 이상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운전을 앞둔 신고리 3, 4호기 앞에서 해상시위를 진행했으며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의 대표적인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 역시 한국을 방문하여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시민들을 초대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부산 및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손 버니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수석 원전 캠페이너는 “세계 원전 산업은 가라앉고 있는 배다. 세계의 국가들이 하나 둘씩 배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장기 승선 티켓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독일과 같이 단계적 탈원전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린피스의 원전 추가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셨으며, 그린피스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 11월, “2034 홍콩 기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옥상 태양전지판 설치를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된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034년은 다야베이(Daya Bay)의 원자력 발전소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로, 그린피스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그린피스의 원전 반대 캠페인은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북극 지킴이들이 이루어낸 승리

전 세계 750만 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결과, 북극 알래스카에서 석유 시추를 하려던 셸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향후 몇 년간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극 보호를 위한 커다란 변화이자 승리입니다.

태평양에서 셸의 시추선을 막아서다

2015년 3월, 미국이 셸의 알래스카 석유 시추를 허가하자 그린피스는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를 탄 여섯 명의 활동가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셸의 석유 시추 장비인 '북극 개척자(Polar Pioneer)'에 올라 수백만 명의 서명과 "북극을 지켜주세요(Save the Arctic)"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활동가들은 강한 바람과 높은 고도에서 무려 6일 동안 용감하게 맞섰으며 이 평화적 직접행동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포틀랜드의 다리 위에서 펼친 평화적 직접행동

셸이 임대한 쇄빙선 MSV 페니카호가 북극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13명의 활동가들이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항의 세인트 존스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카약 활동가들도 물 위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평화적 직접행동으로 이들 동안 페니카호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그린피스는 오바마 행정부에 북극 석유 시추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탄성파 공기총 발포 중단 요청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가 수중 청음기와 수중 비디오 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석유를 찾기 위해 북극 그린란드 해역에서 벌어지는 탄성파 공기총 발포가 북극 고래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탄성파 공기



© Christian Åslund / Greenpeace



© Steve Dipaola / Greenpeace

총 발포 소음은 제트 엔진 소리보다 8배나 큰 소리입니다. 이로 인해 초음파로 소통하고 이동하는 북극의 고래와 돌고래, 일각돌고래 등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청력을 잃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다시 한 번 북극에서 석유 시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셸의 주주들과 직원들을 설득하다

그린피스는 환경 범죄를 일으키는 기업에 항의하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작년 5월, 그린피스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셸의 연례총회를 찾아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북극 석유 시추 및 투자 환경의 위험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영국의 셸 본사 앞에서 거대한 북극곰 인형 '오로라'와 함께 북극 석유 시추 중단을 요구했고, 매일 4인조 오케스트라가 "북극 빙하를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며 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Jason White / Greenpeace



© Will Rose / Greenpeace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힘'

전 세계 7백 만이 넘는 시민들이 북극 지킴이를 자처하며 셸의 북극 석유 시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석유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이는 셸이 북극을 떠나도록 만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북극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든 시민들이 있었기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북극이 영구 세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비록 셸은 북극을 떠났지만 아직도 북극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석유 기업은 물론 대규모 어선들이 북극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북극 보호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 및 상업적인 어업에 대한 전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북극을 영구적인 세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의 북극 보호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



© Marco Care / Greenpeace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기업들과 시장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

2015년,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경쟁적인 남획과 착취로부터 공해의 해양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그린피스는 전 세계 바다의 40%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협약은 해양 보호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정립하여,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법 어업국에서 벗어나다

그린피스는 2013년부터 한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2014년 6월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먼 바다에서 자행되던 한국의 불법 어업의 실태를 담은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월에 한국 정부는 국내 원양어업 관리 항목들이 강화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미국과 EU가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불법 어업국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참치캔 뒤에 숨겨진 비밀

2015년 10월,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 참치캔 회사이자 세계 3위 수산물 기업인 '타이유니온'의 참치캔 뒤에 숨겨진 인권 유린과 해양 생태계 파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 생태계를 고갈시키는 파괴적인 어업 행태를 고발하고, 선원들의 인권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국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무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을 폭로하다

2015년 5월, 그린피스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어업으로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파괴되고 근방의 해양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7월 새롭게 시행된 원양 어선 검사 정책을 시작으로,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초밥 캠페인

2014년 10월부터 그린피스 대만 사무소는 회와 초밥 레스토랑의 해산물 구매 정책과 구매처 등, 조달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해 착한 초밥집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식 레스토랑인 '신예(欣葉)'가 캠페인에 동참하여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태평양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불법 어선에서 잡힌 참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멸종 위기의 바키타를 지키다

2015년 5월, 그린피스는 멸종위기종인 토토아바의 부레를 밀수하는 홍콩 밀수업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바키타가 토토아바를 낚기 위한 그물에 잡히는 일이 많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중국, 미국은 밀수와의 전쟁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전 세계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키타 보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말, 홍콩 정부는 토토아바 부레를 불법 거래하던 상인들을 기소했습니다.



© Gavin Newman / Greenpeace



© Paul Hilton / Greenpeace

참치 뿐일까요?

2015년, 그린피스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수산물 기업들로부터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들은 참치 업계들의 불법 어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 Sumer Verma / Greenpeace

레인보우 워리어 태평양 참치 원정대

2015년에 이르기까지, 그린피스는 총 8차례 태평양 탐사에 나서 참치 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해왔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레인보우 워리어 원정대는 총 11,900km를 항해했으며, 통제 불능 상태의 어업 실태를 발견했습니다. 7척의 중국 어선과 2척의 대만 어선에 승선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획과 불법 상어 지느러미 절취, 노예 선원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인권이 사라진 바다

참치 연승선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비좁은 선실, 깨끗한 물은커녕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상황에서 수 개월, 길게는 수 년 동안 바다 위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선장의 허락 없이 생수를 마시면 20달러, 일 하다가 잠들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0달러를 받는 선원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지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선원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 Paul Hilton / Greenpeace

멸종 위기에 처한 어종의 남획

9월 9일, 대만 어선으로 등록된 'Shuen De Ching 888'호가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 경계에 있는 공해에서 어업을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거의 100kg에 달하는 상어 지느러미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어 지느러미는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어 총 무게의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냉동창고에는 겨우 몇 마리의 상어 시체만 남아있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느러미는 대부분 멸종 위기종인 미혹점상어와 황살귀상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장은 잘려진 지느러미를 일부 다른 배로 옮겨 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참치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고, 나우루 정부는 자국 수역에서 어획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실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FAD(집어장치)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태평양 항해 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수 많은 커다란 통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집어장치(FAD)라고 불리는 장치로, 물고기들은 부유하는 물체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성향이 있어 집어장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렇게 몰려든 물고기들을 거대한 그물로 한 번에 잡아 올리는데, 이때 참치뿐 아니라 상어, 바다거북 등 멸종 위기종과 어린 치어들까지 다 싹쓸이하기 때문에 심각한 생태계 고갈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어업을 위한 유일한 길은 이 집어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 거대 기업과 정부 정책의 변화

참치 업계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 대신 과거의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과학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난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2015년,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의 참치 기업인 '타이유니온'을 대상으로 "참치뿐일까요(Not just Tuna)"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타이유니온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브랜드와 유통업체에 참치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타이유니온의 공급망이 인권 유린과 파괴적인 어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업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 경제의 보석으로 여겨졌던 원양어업은 오랜 관습과 정치권의 보호에 의존해, 먼 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의 파괴적인 어업 행태가 드러나면서 동아시아의 원양어업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노력 끝에 한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불법 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지만, 대만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 다. 그린피스는 대만 수산업의 개혁을 위해 대중과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지속적인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바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거대 기업들의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 모두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구의 녹색 허파, 숲을 지키다

© Valentin Cunha / Greenpeace

숲은 지구의 허파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기후 유지를 돕습니다. 작년 그린피스의 현장 조사원들이 아마존 우림과 콩고분지의 우림, 쓰촨 대왕판다 서식지의 불법 벌목 사례를 밝혀낸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정부가 산림 보호 정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후원자님들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형 제지 업체들, “산림 파괴 중단”을 약속하다

작년 6월, 인도네시아의 거대 제지 기업인 아시아 퍼시픽 리소스 그룹(APRIL)이 마침내 지속가능한 숲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인도네시아의 우림 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탄습지 보호를 요구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이탄습지를 뒤덮은 산불은 개간을 위해 우림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적인 벌목을 자행하는 팜유와 제지 업계의 지속적인 산림 파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린피스와 전 세계 25만 명의 사람들이 파괴되어가는 숲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위도도 대통령은 이탄습지 개발을 중단, 불에 탄 숲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콩고 분지의 불법 벌목을 적발하다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에서 불법 벌목된 목재들은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세계로 수출되어 바닥재나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벌목 회사들의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보노보를 비롯한 희귀 동물들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멸종 위기로 몰리고 있으며, 지역 노동자와 토착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국제적인 목재 수입 업체들이 불법 벌목과 산림 파괴에 연관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산불과 싸우다

봄철, 러시아의 농부들이 건초를 태우고 농지를 개간하기 위해 지르는 불이 잦은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린피스는 황무지 산불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건초를 태우는 것을 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보호 구역에서 건초를 태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마존 불법 벌목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지난 2년간 그린피스는 원거리 감시 기술을 사용해 아마존 산림 파괴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 원주민들을 돕는 한편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작년 10월, 그린피스는 브라질 시민 140만 명의 서명을 모아 브라질 아마존 감시를 강화하고, 산림 파괴를 금지하도록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올해 3월, 법원과 환경부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 벌목꾼 11명을 체포했습니다.



곤경에 빠진 쓰촨 대왕판다를 구하다

작년, 그린피스는 많은 상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벌목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희귀종인 대왕판다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쓰촨 산림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으며 15건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적발해 기소하는 한편 대왕판다 서식지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숲을 지킬까요?

산림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 감시를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해 장기적인 보호 계획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린피스 현장 조사원들이 성공적으로 환경 범죄를 찾아내고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활동가들의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최초의 정보

불법 산림 파괴는 보통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벌목 현장의 실태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그린피스의 산림 보호 캠페인의 출발점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린피스는 쓰촨 대왕판다 서식지가 불법 벌목으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심층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대중들과 쓰촨 산림청에 알렸습니다.

증거 수집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정부와 기업에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그린피스 산림 보호 활동의 필수 요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린피스는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통해 숲의 규모, 나무의 성장 상태, 소수민족 마을의 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아마존 우림의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불법 벌목 현장에서 어

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담은 생생한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에 처한 열대 우림의 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불법 산림 벌채 및 불법 목재의 흐름 추적

그린피스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우림에서 벌어지는 불법 벌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GPS를 활용하여 불법 목재를 운반하는 트럭을 추적했는데, 이는 나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거래를 경찰이 감시하여 불법 벌채를 막도록 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힘입어 유럽 최대의 은행 중 하나인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은 여전히 산림 파괴 중단 약속을 하지 않은 APRIL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숲은 원주민들의 집이자 문화와 생태, 경제를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숲을 지키려 하지만, 어려운 경

제 환경 속에 원주민들이 대기업들의 불법 벌목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린피스와 지역 사회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아마존 목재 밀수가 심각한 상황임을 폭로하고 현지 원거리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숲과 원주민들을 지키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속적인 감시

많은 기업들이 산림 파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만으로는 숲이 처한 위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의 거대 제지 기업인 마스 그룹과 APP는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산림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작년 가을 그린피스는 112,000건 이상의 인도네시아의 산물 중 상당수가 상업적인 개발 허가 지역인 이탄습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파괴적인 벌목과 개간을 위한 방화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만 장기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정책을 바꾸다

작년, 그린피스와 시민들의 요구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우림과 이탄습지의 파괴를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약속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탄습지 개발 허가 지역과 개간 업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산림 보호 캠페인

2016년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 우림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산림 파괴 중단' 약속을 제대로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 개발과 불법 벌목으로 파괴되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과 콩고분지의 우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숲을 지켜낼 것입니다.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해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자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린피스는 전 세계의 후원자님들과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C) 근절을 요구하는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청정지역에서 발견된 PFC

2015년, 그린피스는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PFC가 지구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샘플을 채취한 청정지역 다섯 곳 모두에서 PFC가 발견되었으며, 홍콩에서는 홍콩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저수지에서도 PFC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세 곳에서 PFC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두 곳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 구역의 호수였습니다.



EU, 유해 화학물질 노닐페놀(NPE) 퇴출

그린피스는 지난 2011년, 의류 및 섬유 생산 업계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노닐페놀(NPE)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EU 규제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2015년 7월, 유럽연합(EU)은 NPE를 함유한 섬유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진 폭발 사고 긴급 대응

지난 8월, 텐진 산업 단지 화학 창고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그린피스는 조사원을 급파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독성물질인 시안화 나트륨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실시간 조사를 통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한편, 유사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허점을 경고하고 정부에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사는 날

패스트 패션이 대세가 되고 더 많은 옷이 제작, 판매, 폐기되면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홍콩 사무소는 2015년 11월 27일 “아무 것도 안 사는 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패션의 도시 홍콩에서는 한 해 11만 톤의 섬유제품이 폐기됩니다. 그린피스는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기, 오래 쓰기, 재활용하기”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홍콩 정부에게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디톡스 열풍

Aldi, Lidl, Kaufland와 같은 유럽의 대형 마트 체인들도 그린피스의 “디톡스”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패션업계에 일어난 디톡스 열풍의 결과, 2015년 말에는 전 세계 섬유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총 33개의 의류 브랜드들이 디톡스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중금속 오염 문제를 밝히다

중금속 오염 방지 활동 역시 그린피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그린피스는 중국 란핑주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의 납-아연 광산인 운남 금정 아연광산에서 100m 떨어진 인구 밀집 지역 내 농지의 토양과 아이들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정부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주요 활동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웃도어 산업이 변합니다

아웃도어 업계의 유해 화학물질 퇴출을 위해 2015년 시작된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은 후원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체에 축적되고 자연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이자 생식 기능과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PFC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PFC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대와 더불어, 브랜드들에게 적극적으로 PFC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변화입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PFC-free 선언을 하고 업계의 변화를 이끌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6월 청정지역으로 떠난 원정대

그린피스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 세계 청정지역 8곳으로 원정대를 파견해 물과 눈 샘플을 채취했으며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PFC 포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7월 남겨진 것이 당신의 발자국뿐일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웃도어 동호인들과 함께 등산길에 올라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쓰레기 사냥”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PFC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위험을 안겨주는지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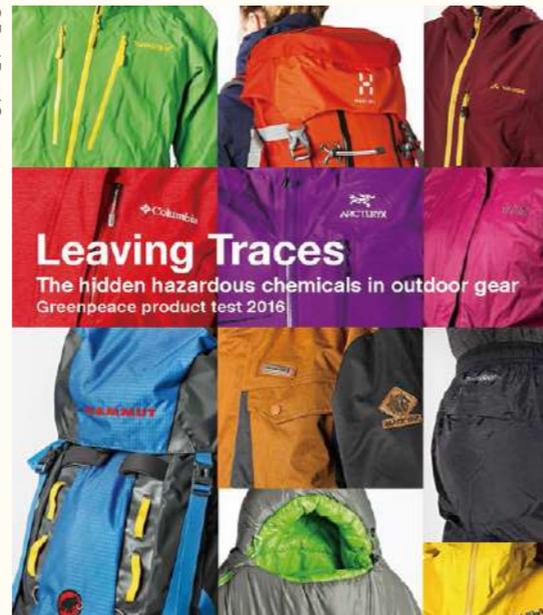
9월 보고서 발표

그린피스는 청정지역에서 발견된 PFC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PFC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여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제품에도 PFC가?

“제가 사용하는 제품에도 PFC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연을 사랑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전 세계 시민들이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 Fred Doti / Greenpeace



10월 어떤 제품을 테스트할까요?

그린피스는 총 19개국 3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에 따라 PFC 포함 여부를 조사할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11월 여러분이 만드는 ‘열린 캠페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PFC-Free 선언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린피스는 누구나 참여해 톡톡 튀는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2월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PFC

지난 6월 원정에 이어 동아시아 청정지역을 조사한 결과 홍콩, 대만, 한국의 생태 보호 구역은 물론 하천, 연못 등 다양한 지역에서 PFC가 검출되었습니다.



2016년 주요 활동

■ 성과 ■ 시민 참여

1월 제품 테스트 결과 발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된 제품 테스트 결과, 90%의 제품에서 PFC가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독성물질로 알려진 PFOA가 포함된 제품들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PFC-free 선언

뮌헨에서 열린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박람회 ISPO 현장에서 그린피스는 PFC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날 아웃도어 브랜드 파라모가 공급망 및 제품 제작 과정에서 PFC-free를 선언했습니다.

내 마지막 PFC 장비

“내 마지막 PFC 장비” 이벤트는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한 평화적 직접행동으로, 시민들은 PFC가 포함된 아웃도어 용품을 착용하고 “이것이 내 마지막 PFC 장비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PFC-free 등반에 도전하다

세계적인 산악인 데이비드 바치는 PFC가 포함되지 않은 등산복을 입고 가파른 파타고니아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2월 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2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마무트와 노스페이스, 블랙야크에 PFC-free를 요구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음식



2015년, 그린피스는 전 세계 각지에서 식품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와 조사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잔류농약 검사

작년 10월, 그린피스는 대만 전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채소와 과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은 물론 불법 농약이 사용된 식품까지 발견되었으며, 그린피스의 검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일부 마트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원산지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 확산 저지

2015년 5월, 그린피스는 중국 동북지역 주요 옥수수 생산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옥수수 종자와 옥수수 제품의 샘플을 채집해 독립 연구실에서 검사한 결과, 90%가 넘는 제품에서 불법 유전자 조작 식품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오닝 성 농업청은 즉각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월, 중국 농업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확산을 막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속적인 감사로 장바구니를 지키다

수년간 진행된 캠페인의 결과 작년 초, 중국 농업부는 화학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줄여나갈 것이며 5년 내 사용량 동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원산지 시찰과 표본 검사를 포함해 중국 주요 도시의 채소 및 과일 품질 안정성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갔으며, 2015년 베이징과 상하이시 정부는 현행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 농약의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속 발암 물질을 폭로하다

지난 5월, 그린피스가 중국 내 유전자 조작 식품을 조사한 결과 40% 가까운 식품에서 잔류 글리포세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의 하나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재배 과정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며 국제 암 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을 줄여 꿀벌을 구하다

작년 10월, 그린피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의 농약 남용 문제와 이에 따른 야생 동물 및 새, 꿀벌 등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유기농 농산물의 장점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으며, 프랑스의 가장 큰 마트 체인인 E. Leclerc는 농약을 덜 사용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국가가 유전자 조작에 대해 반대하다

작년, 그린피스는 필리핀 정부와 함께 현지 지역사회에서 생태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농경지에서 유전자 조작 실험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유럽연합의 19개 국가에서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식품의 출발은 건강한 농경지에서

농지가 건강해야 안전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중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 식품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중국의 농경지와 시장을 방문해 조사를 통해 식품 안전 사고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또한 농가와 협력해, 화학 비료와 농약 대신 청정한 땅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한 장바구니를 위해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로, 이렇게 생산된 식품은 세계 각지로 널리 수출됩니다. 하지만 농업 국가로서의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식품 안전 문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린피스

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개 시의 채소 표본 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광저우 채소에서 많은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를 통해 방송되어 수 많은 시민들에게 농약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그린피스는 정부의 상세한 조사와 규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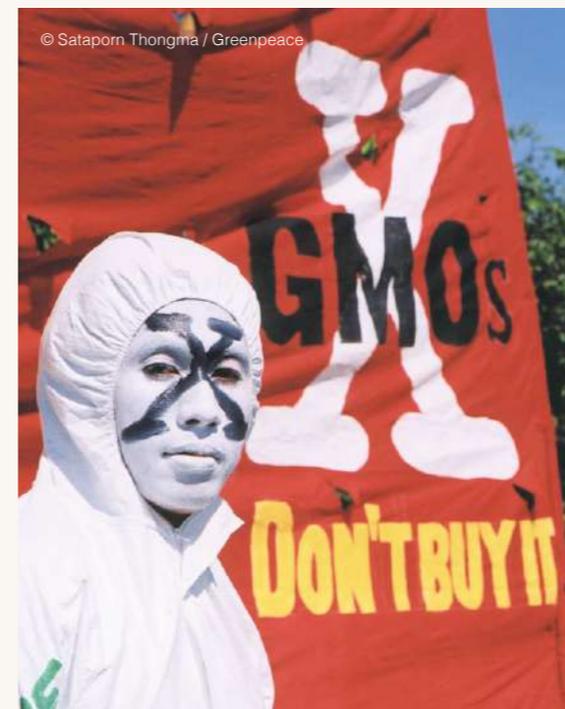
채소와 과일의 잔류농약 함량을 측정하다

2015년 10월, 중국에서 새로 개정되어 정식으로 발효된 식품안전법은 그린피스가 수년간 진행한 식품 안전 캠페인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린피스는 작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시장의 제철 과일과 채소 표본을 뽑아 466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7년 전 동일 항목으로 진행한 검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독성을 가진 농약 함량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7%의 과일과 채소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고추와 콩, 포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농약 사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다

비록 높은 독성을 가진 농약의 사용은 줄어들었지만, 낮은 독성의 농약 역시 인체 내분비계통에 영향을 주거나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작은 양이라도 같은 종류의 농약을 인체가 장기적으로 접촉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농약을 장기적으로 섭취한다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농약을 섭취하는지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농약 사용 현황을 엄격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 농업 운동

2015년 5월, 그린피스는 중국 동베이 해룡장성의 우창시를 찾아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재배 방식과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생태 농법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는 '우창 따미'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맛있는 쌀로 중국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우창시의 생태 농가에는 논을 오가며 열심히 일하는 귀여운 오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리들은 천성에 따라 논에서 해엄을 치면서 잡초를 먹기 때문에 벼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논에 사는 해충을 먹어치워 벌레 제거에도 도움을 주며, 오리의 배설물은 논을 더욱 비옥하게 만듭니다. 벼와 오리의 공생은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도 물이 숨 쉬고 논이 비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현지 농민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오리를 이용해 생태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들에게 생태 농업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생태 농업, 인간과 환경의 상생

오늘날, 먹거리의 안정성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식량을 자연에서 얻습니다. 화학 농약과 비료에 의지해 쌀과 과일, 채소를 재배하는 방식은 생태 환경을 하루가 다르게 파괴하고 있으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피스는 전 세계 각지의 생태 농업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가들,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나갈 것입니다.



© Jean Chung / Greenpeace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불법 어업을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파괴되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는 항상 최전방에서 감시하고 활동합니다. 활동가들이 최전방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은 필수입니다. 그린피스는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 기록, 미디어 홍보, 데이터 분석, 평화적 직접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알립니다 * 커뮤니케이션팀

그린피스의 다양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단체의 특성상, 사람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하 컴스팀)은 이런 “소통”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린피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컴스팀은 더 많은 분들에게 환경 문제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보다 쉽게 전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알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조사 결과를 알립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사무소의 컴스팀은 언론, 온라인, 영상 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전개했던 석탄 줄이기 캠페인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폭로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캠페인 내용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으며, 거리에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때 컴스팀은 담당 캠페이너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자들을 초대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 “탄거하자”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는 크고 작은 행사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미진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국내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네이버가 아시아 기업 최초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환경 문제의 생생한 현장을 전합니다

그린피스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들과 활동들을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작년,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태평양 위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업과 선원들의 인권문제를 고발했습니다. 선박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불법 절취된 상어 지느러미 사진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노예 선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선원 인터뷰 영상 역시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환경 정책 변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 산림 파괴 현장, 텐진 폭발 사고, 유해 화학 물질 배출, 살충제 남용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하고 월별, 분기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 분석팀이 환경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대중과 언론에 알립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캠페인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 Lim Taehoon / Greenpeace

최신 기술을 활용한
조사 및 연구

* 연구조사팀

상당수의 환경 문제들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피스의 연구조사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합니다.

첨단 측정 장비를 활용한 조사

그린피스는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자료를 캠페인에 활용합니다. 그린피스의 방사성 보호 전문가(Radiation Protection Advisor)팀은 후쿠시마 인근 오염 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방사능 측정 장비들을 활용합니다. 서울 사무소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는 RadEye(방사선을 측정하는 눈)이라는 성능이 뛰어난 개인용 방사능 측정 장비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나 조사할 때 즉시 있을 수 있는 방사능 피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측정기인 '리틀블루(PDR1500)'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 장치는 광산란법을 이용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먼지 입자를 채집해 연구기관에 보내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리틀블루는 영국의 그린피스 자체 연구소와 각 지부의 리서치팀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측정을 보증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한 리틀블루의 활약으로, 그린피스의 초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 Shaun Burnie / Greenpeace

지리 정보 시스템(GIS)과 원격 탐사 기술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위성 사진 분석 및 원격 탐사 기술은 그린피스 연구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린피스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등의 산림의 실태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텐진의 폭발 사고 이후, 그린피스는 2008년 6월 같은 장소에서 촬영했던 위성 영상 및 원격 탐사 기술을 사용해 공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위험물을 보관했던 창고와 주거구역 및 학교와의 거리를 분석해 중국 정부의 위험물 규제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위성을 사용한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 역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린피스는 불법 전자제품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GPS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 버려진 TV와 컴퓨터가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지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한 장바구니' 캠페인의 일환으로 GPS를 활용해 농장에서부터 출발해 시장에 공급되는 야채와 과일 등의 공급망을 추적해 중국의 불법 농약 사용을 감시했습니다.



© Qi Lee / Greenpeace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환경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 정책 자문팀

그린피스는 녹색금융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며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감시해왔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강조하는 리포트를 발표하고, 정치 및 경제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환경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전체적인 분석 제공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관련 투자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석탄 관련 사업으로 전체 회사 매출의 30%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즉시 이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장단점과 키포인트를 분석했으며, 금융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무시할 수 없는 환경적인 투자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투자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7월, 홍콩 증권거래소는 "환경, 사회와 행정 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그린피스 역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린피스는 투자자들에게 환경 문제로 인한 투자 위험 동향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그린피스는 환경 파괴를 중단시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 평가 보고서를 분석, 감사하고, 다양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작년 8월,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선진화 및 IT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2월 시행령 발표에 앞서,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작년 중국 쓰촨 대왕판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쓰촨 산림청은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와 건의를 받고 즉시 행동에 들어갔으며 위법 행위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각국 대표들이 학술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린피스 역시 회의에 참석해 토론하고 교류하였으며,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Henrik Evertsson / Greenpeace



© Daniel Beltrá / Greenpeace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 평화적 직접행동

평화적 직접행동은 그린피스의 캠페인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재미 있게 환경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기업과 정부에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다양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년 5월, 그린피스는 '월드 IT쇼 2015'에서 "뜨거워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언맨, 심슨, 아톰, 태권V가 등장해 레드카펫에서 캐워크와 함께 "뜨거워진"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펼쳤는데,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석탄이나 원자력 에너지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그린피스가 중국 367개 도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전체 80%가 대기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린피스는 중국 정부에 석탄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파란 하늘을 찾아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영상을 만리장성의 벽에 투사했습니다.



© Yang Di / Greenpeace

대만

작년 10월, 대만은 불법 어업 현장이 적발되어 EU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대만 정부에게 시급한 대처와 정책 개정을 요구했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력 후보들의 선거본부에 '옐로우 카드'를 친 거대한 손 모양의 동상을 보냈습니다.

홍콩

작년,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홍콩 곳곳에 위치한 100개가 넘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ATM기기에 "대산화초를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대산화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파괴하는 카마이클 광산 사업의 재정보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환경 파괴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모여, 결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카마이클 광산 사업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 Clement Tang Wai Kin / Greenpeace

비상사태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처합니다
* 긴급 대처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린피스는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조사 및 구호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린피스가 보유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조사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대처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구호활동

그린피스는 환경단체이기도 하지만 평화와 인권과 관련된 활동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태풍이 태평양의 비누아투 섬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신속하게 태풍 피해자들에게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경없는 의사회와 협력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를 건너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구조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스캔들에 대처하다

작년 9월,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는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사무소의 에너지 전문가들로 비상 대응팀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 원인 분석과 함께 규제 기관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 Will Rose / MSF / Greenpeace

텐진 폭발 사고의 중심지로 향한 유일한 환경단체

2015년 8월 12일, 텐진 폭발 사고로 20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즉시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 다음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시안화물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비나 바람 등 날씨 변화에 따른 영향, 오염 물질의 분산 상태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디어에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Na Zhou / Greenpeace



© Michael Loewa / Greenpeace



© Lee Kang Hoon / Greenpeace



© Taekyong Jung / Greenpeace



© Taekyong Jung / Greenpeace

후원자님과 만난 소중한 시간 해피 그린피스 데이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후원자님의 힘입니다. 2015년, “해피 그린피스 데이”를 통해 후원자님들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Lee Kang Hoon / Greenpeace



© Greenpeace



© Taekyong Jung / Greenpeace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한 해피 그린피스 데이

작년 10월, 그린피스의 상징적인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2015 떠거하자 투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규 건설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와 원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진 가능성을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과 24일에는 후원자님들이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원들은 물론 그린피스의 직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린피스가 하는 일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해피 그린피스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접 항구로 찾아오셔야 했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원자님들과 가족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분들은 고리 원전의 위험과 원전 추가 반대 캠페인,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에 대해 캠페이너에게 직접 설명도 듣고, 그린피스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캠페인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신용운 마술사의 마술쇼도 진행되었으며, 페이스 페인팅 부스는 어린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원들은 배를 방문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직접 배의 역사와 선원들이 하는 일, 배 곳곳에 담긴 에피소드, 그린피스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후원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행사장에서는 어린 자녀들, 또는 나이 지긋한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 친구나 연인과 함께 찾아주신 분들, 청소년 등 성별이나 연령

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린피스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캠페이너와 선원들에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모습이 무엇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린피스 직원들과의 질문답변 시간에는 “국내의 환경단체들과는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린피스는 개인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데, 활동하기에 부족하지 않는지” 등의 환경 문제 및 그린피스의 실질적인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후원자님들이 환경과 그린피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안전과 돈을 바꿀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이현숙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피 그린피스 데이” 행사는 후원자님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 직원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과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그린피스의 직원들에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은 무엇보다도 큰 보람과 기쁨을 선사해주셨습니다.

그린피스는 2016년에도 더 많은 후원자님들과 만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후원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후원자님의 목소리가 그린피스를 움직입니다!

그린피스의 후원자님들은 그린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후원자님들의 의견을 통해 그린피스는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야를 얻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보내온 후원자님들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

홍콩은 국제도시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행동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날드 황 후원자님

환경 보호는 지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습관이나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줄리아 로 후원자님

그린피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는 거대 기업 및 정부의 실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그린피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대자연의 소중함을 잘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더린 후원자님

보다 큰 조직이나 기업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더 널리 알리고, 특정 이익 집단에 편파적이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입장에서 자원의 남용과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중단시키고 예방하는 것이 그린피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그린피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소신 있게 옳다고 믿는 신념에 따라 실천하는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활동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환경 문제나 멸종위기의 동물보호, 지구 온난화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한정된 분야 외엔 환경 문제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종각역에서 거리모금가 이민열 님에게 설명을 듣고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 있어 더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린피스가 이뤄가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환경단체에 후원할 수 있게 소개해 준 거리모금가분들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에 살다 보니 쓰레기 문제, 무분별한 벌목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더 현실에 와 닿는데, 그린피스의 활동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 Lee Kang Hoon / Greenpeace

후원자 미니 인터뷰

“그린피스에 후원하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아빠 김동올 후원자님이 TV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린피스 후원을 시작하신 이후로, 나중에 자라서 그린피스의 “대장”이 되는 것이 꿈이 되었다는 6살 지아.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내려와 직접 쓴 편지와 동물 인형, 그림을 피터 선장님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신순화 님은 “아이가 아기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자연과 환경에도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라며, “제 고향이 부산인데, 원전이 이렇게 우리 사는 곳과 가까이 있는 지도 몰랐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이 와 닿았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린피스에 후원을 시작하면서 재활용 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습관이 다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를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린피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사드려요.”



© Taekyong Jung / Greenpeace



GREENPEACE

*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빅 리스닝(Big Listening)'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뜻깊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자랑스러운 한 해

지구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ristina San Vicente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Cristina San Vicente)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2015년은 그린피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획기적이고 변화 무쌍한 한 해였습니다. 20개가 넘는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퇴출할 것을 약속했으며, 멸종 위기의 바키타를 지키고, 한국의 원전 위험을 널리 알리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업과 인권문제를 고발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호주의 아름다운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파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이 모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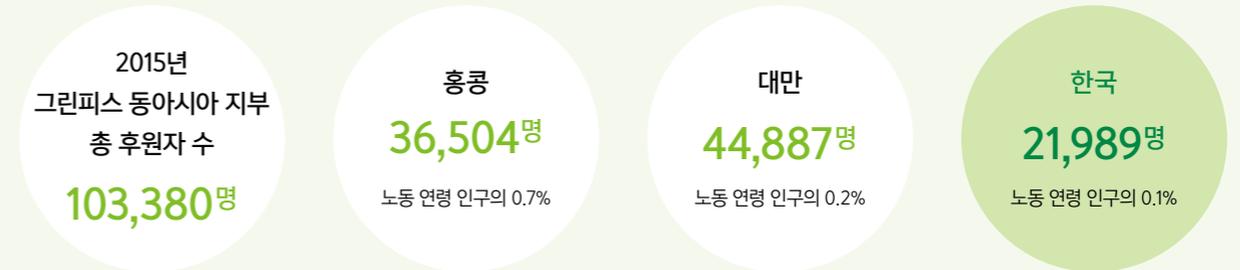
2015년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10만 명을 넘어선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성은 그린피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그린피스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립을 지키며 보다 적극

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캠페인을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들,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후원해주시는 분들까지, 그린피스의 모든 캠페인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린피스가 이루어낸 성과들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그린피스의 5가지 캠페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표에서는 그린피스가 대중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만 번의 감사 인사

2015년 9월 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올라 섰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후원자님들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더 큰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후원자님들이 정기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개개인의 모든 후원이 하나로 모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만 후원자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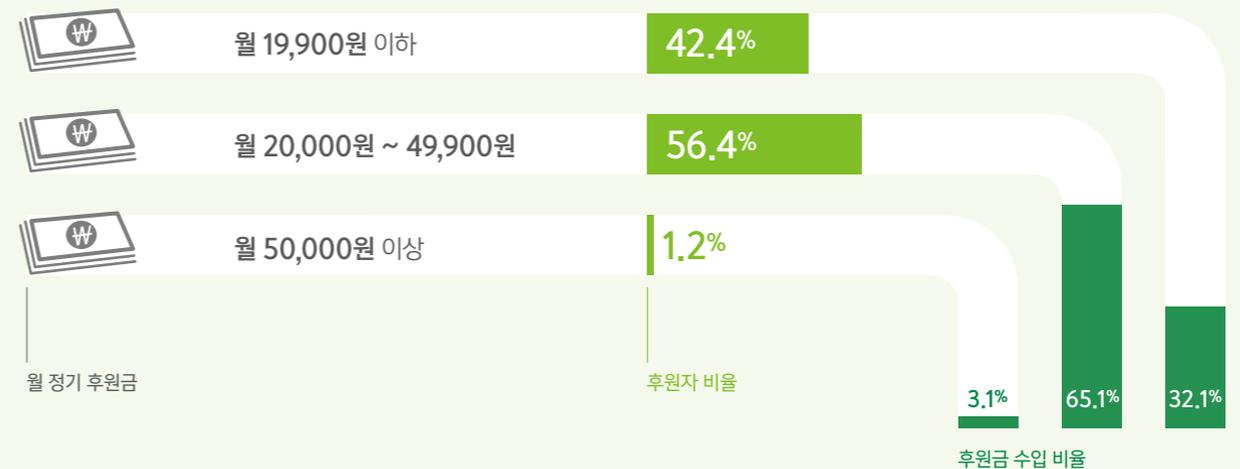


전 세계 그린피스에서 우리는 몇 등일까요?

그린피스는 전 세계 27곳의 지부와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더 많은 후원자가 모이면 후원의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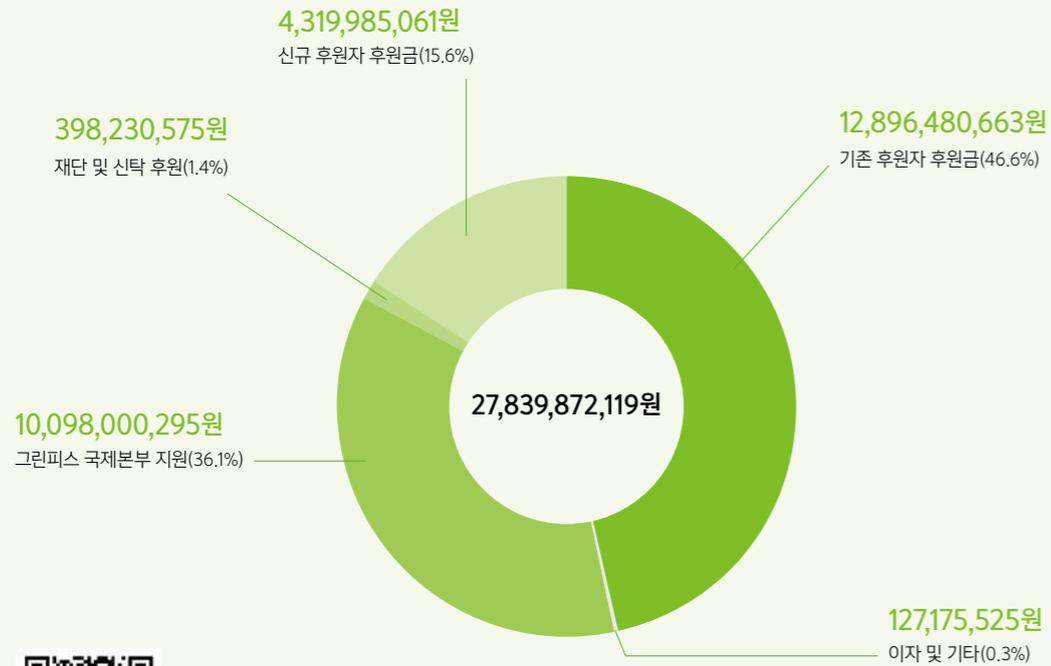
여러분의 후원으로 캠페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의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는 후원자 수 및 후원금 규모뿐 아니라 국제적인 캠페인의 중요도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후원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 성장 전략에 힘입어, 2015년 후원금 수입은 33% 상승했습니다. 이 성장은 그린 피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주시는 기존 후원자님과 2015년 새롭게 후원을 시작해 주신 한국과 홍콩, 대만의 후원자님 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도움 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후원금만으로 동아시아 지부의 캠페인 활동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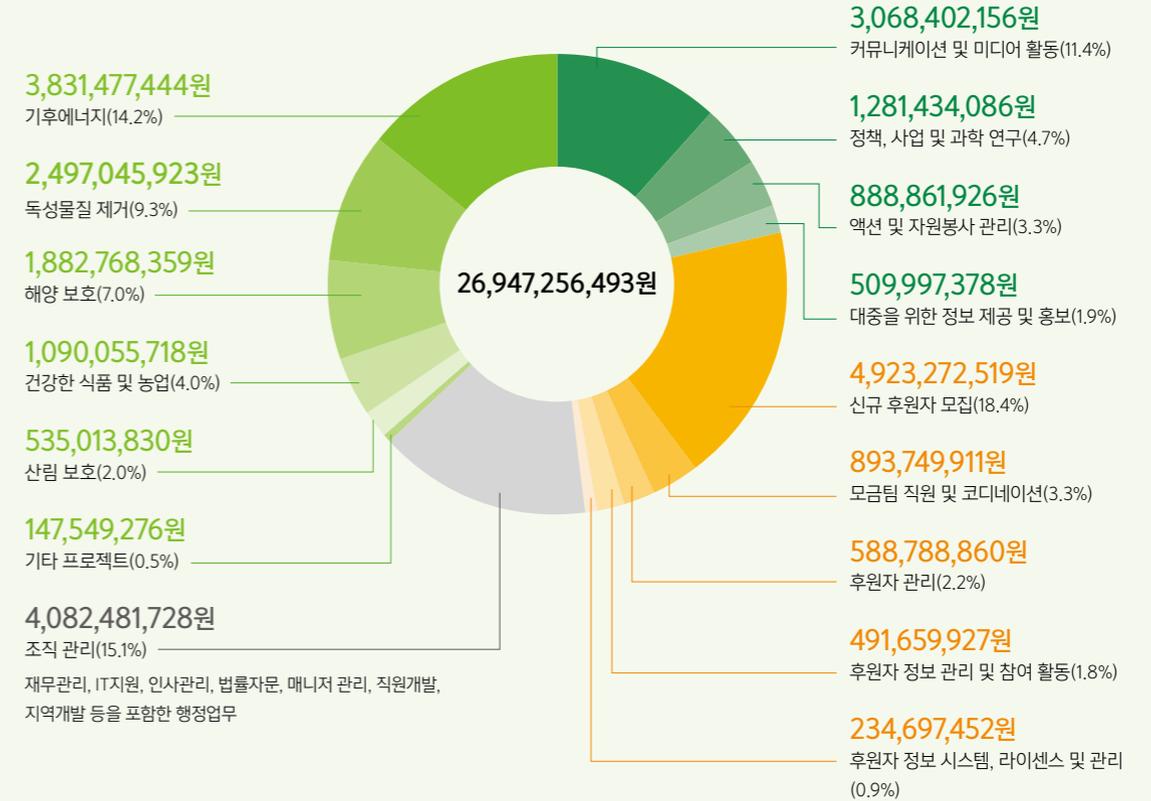
그린피스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NGO 단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국제 NGO 책임 현장 및 윤리적인 기금 모금의 원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모든 수입은 전체 2% 이하 소액의 독립 재단 기부금과 신탁 후원을 제외하면 여러분과 같은 개인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후원금 총 수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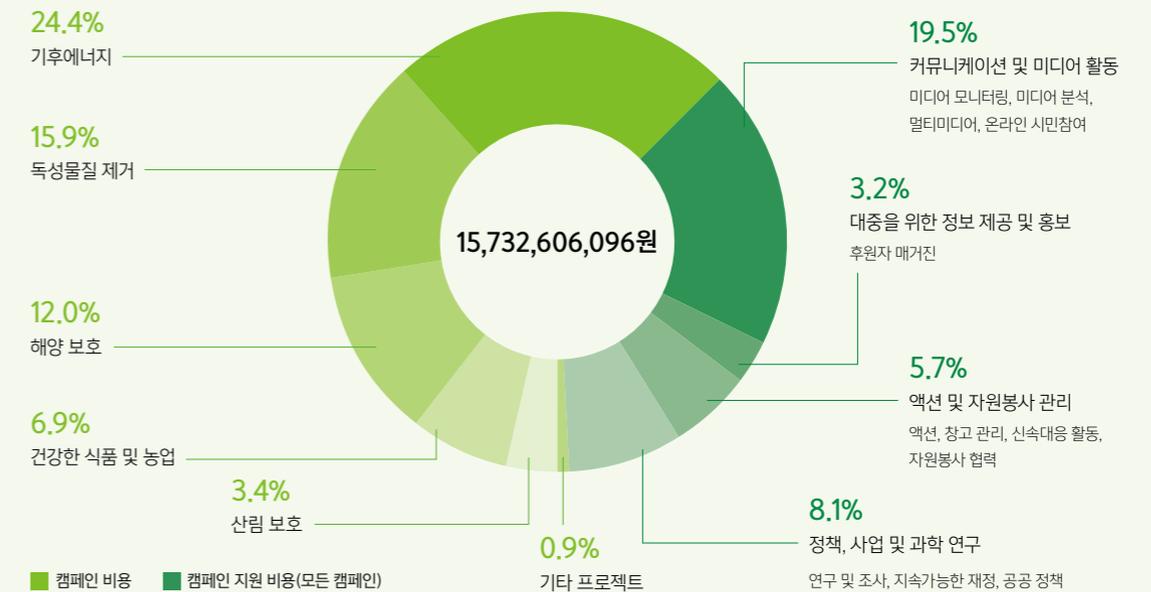


본 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재무재표에 공시된 내용이며 PKT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www.greenpeace.org/eastasia/publications/annual-reports-2015/financial-statement

2015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총 지출 비용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비용



캠페인 별 세부 지출 비용

후원자님의 뜻 깊은 후원으로, 2015년 그린피스는 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캠페인 별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 유해 화학물질 없는 대자연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한국과 홍콩, 대만 및 중국에서 그린피스의 글로벌 캠페인인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디톡스 아웃도어	그린피스는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인 PFC의 사용 중단을 위해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의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을 찾아가 물과 눈 샘플을 채취해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눈 속에서 찾은 화학 발자국’과 ‘지역환경 PFC(과불화화합물) 오염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진 아웃도어 용품들의 PFC 함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PFC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303,569,217
나의 패션 디톡스	패스트 패션과 관련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으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브랜드들이 디톡스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104,124,431
과잉 소비	과잉 소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홍콩의 패스트 패션계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언론 홍보 활동과 함께, 유명인과 함께 하는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31,752,140
신규 디톡스 프로젝트	그린피스의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과 기후에너지 캠페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103,405,644
중금속	중국 운남의 아연과 납 광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린피스가 운남 지역 집안의 먼지, 공기 및 물의 샘플을 채취해 테스트한 결과 중금속이 유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중금속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54,636,563
중국 텐진 폭발	그린피스의 신속 대응팀은 텐진 폭발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아가 화학 잔여물질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중국 당국에게 화학물질 보관 관리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8,125,012
총합		
홍콩		188,917,115
중국	지역 프로젝트 스태프 18명(한국 2명, 홍콩 3명, 대만 3명, 중국 10명),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477,397,371
한국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63,543,343
대만		234,917,119
글로벌 프로젝트 배분	글로벌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부 스태프 관리, 기타 간접비	187,953,270
국제 디톡스 미팅	2016년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글로벌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미팅 진행(대만)	31,095,386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426,328,846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231,280,466

합계 **2,497,045,923원**

기후에너지 캠페인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기후에너지 캠페인은 그린피스 캠페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캠페인입니다. 동아시아 지부에서는 석탄과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향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동아시아 지부는 석탄과 대기오염, 석탄과 수자원 관련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한국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캠페인을 진행하며 고리 원전 인근의 부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한편 기자회견과 평화적 직접행동을 통해 원전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하버드대학교 연구소와 함께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땀거하자” 캠페인을 통해 IT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촉구했으며 네이버가 아시아 최초로 데이터센터 운영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512,417,368
대만	IT기업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뒤 대만 환경보호청에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테스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09,904,295
홍콩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홍보했습니다.	74,191,981
대산호초	카마이클 광산 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던 호주의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 석탄 사업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던 스탠다드차타드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42,487,793
석탄과 수자원	석탄으로 인한 수자원 문제(폐수 배출, 자원 낭비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석탄 사용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53,061,460
석탄과 수자원 - 중국	중국에서 가장 큰 석탄 광산인 산시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황허강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석탄 광산의 무차별 확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요 잡지와 사이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6,375,469
석탄과 대기오염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 동남아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 사무소는 최첨단 석탄오염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석탄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8,273,472
석탄과 대기오염 - 중국	“도시에 따른 대기질 순위”를 발표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캠페인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는 중국의 도시들을 압박하고, 주요 도시들이 석탄 감소를 위한 핵심 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64,473,041
석탄과 가스	석탄 발전 및 화학 공정으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중국 신장의 칼라마이리 자연보호 구역의 문제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불법 석탄-가스 발전소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53,871,389
석탄 - 중국	중국의 과장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산화탄소 초저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64,597,978
에너지 솔루션	재생가능에너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 중국 장쑤성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태양열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24,101,005
국제 기후변화 협약	파리 기후협약에 참가하여, 각 국의 대표들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408,376,141
총합		
홍콩		103,184,223
중국	17명의 프로젝트 스태프(한국 5명, 홍콩 3명, 중국 9명)들의 현장 조사 및 작업, 관리, 조정 및 기타 간접비	682,918,825
한국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242,323,299
글로벌 프로젝트 배분	글로벌 석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부 스태프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102,973,992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658,191,137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299,754,576

합계 **3,831,477,444원**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

*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팀은 2015년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생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조사, 식재료 샘플 테스트 및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살충제 테스트 - 대만	대만의 주요 슈퍼마켓 8곳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야채를 테스트하고, 잔류농약 여부 및 양에 따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7,977,039
장바구니 - 중국	중국이 생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GPS 추적, 잔류농약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태 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고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리를 입양해 농촌으로 보내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222,017,111
유전자 변형 음식 - 중국	랴오닝성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93%가 불법 유전자 조작(GE)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지방 정부는 불법 GE옥수수 종자 판매를 금지하고, 올해 봄 쟁기질하는 농가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6,160,739
녹조 현상	그린피스의 조사로 중국의 타이 호수와 차오 호수의 식수에 높은 수준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948,626
농사 - 중국	새로운 캠페인을 위해 중국의 농업계를 조사하였습니다.	4,451,597
종합	중국	357,302,537
	대만	7명의 프로젝트 스태프(중국 6명, 대만 1명)들의 현장 조사 및 작업, 관리, 조정 및 기타 간접비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121,274,366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105,469,978

합계 1,090,055,718원

산림 보호 캠페인

* 우리의 숲을 지켜주세요

2015년 그린피스의 산림 보호 캠페인은 중국의 불법 벌목과 천연림 보호, 콩고 분지의 우림 보호 활동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중국 천연림	2년간의 조사 끝에 쓰촨 대왕판다의 서식지가 불법 벌목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 정부에게 즉시 조사에 나설 것과 산림 복원 정책의 허점을 검토하고 규제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99,115,841
콩고 분지 우림	콩고 분지의 열대 우림에서 반출되는 불법 목재에 중국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은 현재 콩고 목재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불법 목재 수입을 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8,440,107
즉시 대응	외부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팀입니다.	1,834,631
종합 중국	5명의 프로젝트 스태프들의 현장 조사 및 작업, 관리, 조정 및 기타 간접비	278,825,609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44,210,927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52,586,715

합계 535,013,830원

해양 보호 캠페인

*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2015년, 그린피스는 남획과 불법 어업을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해양 보호 캠페인은 2016년에도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불법 어업 및 남획 - 대만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명 스키 레스토랑 체인을 압박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해 EU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 학계, 업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원양어업의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94,393,715	
참치뿐일까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태평양을 순찰하던 중 불법 어업 중이던 대만의 어선을 발견하고 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24,087,606	
불법 어업 및 남획 - 한국	노예 선원들의 인권 문제와 남획되어 멸종 위기에 있는 참치 등 참치업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온라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2,913,042	
지역 해양 보호 캠페인 개발	원양업계의 문제를 밝히는 알리는 글로벌 참치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66,637,037	
바키타 보호	멸종 위기에 처한 바키타가 홍콩에서 값비싸게 거래되는 토토아바의 부레를 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려, 100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홍콩 정부에게 단속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90,244,922	
IUU - 서아프리카 및 중국	1년 동안 조사 끝에, 보고되지 않은 비규제 불법 중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벌이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61,112,656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회의	타이페이에서 최근 진행된 해양 보호 캠페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7,478,391	
종합	홍콩	67,432,195	
	중국	9명의 프로젝트 스태프(한국 3명, 중국 2명, 홍콩 2명, 대만 3명)들의 현장 조사 및	163,299,688
	한국	작업, 관리, 조정 및 기타 간접비	141,165,546
	대만		215,870,886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495,609,615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162,523,060	

합계 1,882,768,359원

기타 캠페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기타 이슈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한 국제 회의 및 교육 참석	16,149,396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스태프 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 리플렛 및 홍보 용품 제작 등	105,935,077
배분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25,464,803

합계 147,549,276원

캠페인 지원 비용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캠페인 지원팀이 있기에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미디어 홍보, 대중과의 소통, 창의적 직접행동,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팀과 정책 및 외부 업무팀은 금융권,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업무	내용	금액(원)	
미디어 모니터링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87,683,757	
미디어 분석	언론 및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그린피스 캠페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346,446,848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사진,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미디어에 활용하는 내부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관리합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합니다.	276,942,053	
홍콩	한국, 홍콩, 대만, 중국 각 사무소 별 4~5명의 직원들이 활동합니다. ·멀티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술 ·통합 프로젝트 전략 개발 및 실행	188,717,832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한국	·그린피스 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안 ·미디어 문의와 대중 요청 사항 응대 ·대중 조사, 메시지 테스트 및 홍보 전략	300,319,475
대만	·기자, 미디어 편집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정보망 구축	188,155,579	
중국	상기 업무에 추가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및 중국 사무소 홈페이지 관리	620,814,970	
글로벌 프로젝트 협업	글로벌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지부 내 사무소 및 국제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82,513,374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홍보합니다. (북극 보호, 호주 대산호초 캠페인을 비롯해 홍콩의 바키타 보호, 대만의 불법 어업, 한국의 석탄 캠페인 등)	425,903,002	
온라인 참여활동	후원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을 진행합니다.(이메일, 소셜 미디어, 모바일 웹페이지 등)	205,107,383	
후원자 매거진	연 3회 캠페인 소식지(임팩트 리포트)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발행합니다.	509,997,378	
직원 개발	지역 스킬 공유, 아이디어 개발 및 창의적인 협력을 위한 직원 정기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77,877,898	
역량 개발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테스트합니다. 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분석합니다.	267,919,985	

합계 3,578,399,534원

창의적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협조

업무	내용	금액(원)	
트레이닝 및 장비	창의적 직접행동(NVDA) 및 클라이밍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기존 장비를 관리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합니다.(서울, 대만 사무소에서 액션을 위한 고무 보트 구입)	162,757,745	
창고	창고(장비 보관소)를 운영합니다.(대여비, 관리, 보수)	197,805,164	
지역 창의적 직접행동 및 시민 참여	창의적 직접행동 트레이닝을 진행 및 관리하고 시민참여 활동을 관리합니다.	27,324,875	
홍콩	6명의 액션 코디네이터(한국 2명, 홍콩 1명, 대만 1명, 중국 2명)와 액션팀 리더가 창의적 직접행동 계획, 실행, 활동가 개발, 협업, 물류, 예산관리 및 법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148,439,921	
창의적 직접행동 및 시민 참여	중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136,851,643
한국		140,472,111	
대만		36,215,656	
자원봉사자 - 대만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개발 업무를 진행합니다.	38,994,811	

합계 888,861,926원

연구, 조사 및 특별 자문

업무	내용	금액(원)	
연구 역량 형성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정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 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64,574,268	
지역 조사 및 연구	지부 내 조사 및 연구 진행, 지휘	30,510,489	
홍콩	8명의 조사원(한국, 홍콩, 대만 각 1명, 중국 5명)과, 베이징에 기반을 둔 조사 및 연구팀 리더가 함께 활동합니다.	28,320,296	
조사 및 연구	중국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조사의 계획, 협조 및 실행(온라인 및 현장 조사)	377,013,218
한국	·혁신 : 공공의 정보를 테스트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얻은 정보 테스트	42,010,255	
대만	·주요 환경 사고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문 제공	42,806,930	
자문 - 정책 및 외부 업무	3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부 및 UN과 연락하여 자문 제공 ·정부 주요 인사, 조사기관 및 NGO와 유대 관계 유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및 캠페인 관련 세미나 참여	219,099,162	
자문 -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 전문가 4명이 지속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 전문적 자문 제시 ·공개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투자 및 금융 커뮤니티 참여	377,099,468	

합계 1,281,434,086원